

17대 대선과 후보자 요인

윤종빈 | 명지대학교

| 논문요약 |

이 연구는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을 17대 대선 후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증한다. 후보자 요인으로 자질 및 지도력, 그리고 도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후보자의 자질 및 지도력' 항목에는 도덕성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예상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대 대선에서 후보자 요인 항목은 지속적으로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노년층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일수록 후보자 요인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기 지지에서 이탈한 비율이 이명박 후보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지지 후보에 대한 실망감과 새로운 후보에 대한 지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BBK사건과 이회창 후보 출마선언과 관련된다. 다섯째, BBK사건은 지지후보 결정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패널조사에서도 그 영향력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철회에서 알 수 있었다. 17대 대선에서는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인식으로 노무현 정부 평가가 이명박 후보 지지를 좌우했지만 유권자들의 의식 속에는 대통령 자질로서 도덕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 서론

많은 전문가들이 17대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무현 정부 심판과 경제 살리기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과정에서 언론과 국민의 가장 큰 주목을 끈 것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나친 이념 투쟁으로 서민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믿는 많은 유권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이명박 후보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시각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BBK 주가 조작 가담 의혹으로 시작한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자녀의 위장 전입, 위장 취업 및 탈세 의혹으로 번져 더욱 악화되었다. 8월 20일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이후 줄곧 50%대를 유지하던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11월 20일 ‘대안 후보론’을 내세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선언과 11월 17일 BBK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의 국내 송환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락했다. 이때만 해도 BBK사건은 대선을 뒤흔들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었고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도곡동 땅 차명보유 논란에 대해 ‘제3자 소유로 보인다’는 검찰의 발표에서 나타난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후보등록이 약 10일 지난 뒤인 12월 5일,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수사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명박 후보의 독주는 지속되었다. 선거 막판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끝난 뒤 이명박 후보가 BBK 설립을 스스로 자인한 것 같은 발언을 담은 ‘BBK동영상’이 공개되었지만 대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17대 대선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과거 대선과 달랐다. 우선 선거구도가 1년 내내 1인 독주체제로 지속되었고 선거캠페인이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 혹은 네거티브 공세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2년 대세론의 이회창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둘째, 과거 선거와 달리 지역에 기반을 둔 지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영남 출신인 이명박 후보가 선거 내내 호남에서도 1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했고, 충청 지역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이회창 후보의 고른 지지가 나

타났다. 셋째, 남북관계 및 이념 변수의 영향력 약화 현상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합의되어 대선을 2개월여 앞둔 10월 초에 개최되었지만 예상과 달리 두드러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2002년 대선과 달리 남북문제를 둘러싼 이념 변수의 영향력이 강하지 못했는데, 이는 진보 유권자들조차도 이명박 후보가 개혁적 후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17대 대선과정에서 경제변수, 노무현 정부 평가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논란이 유권자의 의식 및 투표지지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한다. 이 연구는 후보자 요인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17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두드러졌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첫째,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노무현 정부 평가 변수, 경제 변수, 후보자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는 특히 후보자 요인인 자질과 지도력을 중시하는 유권자가 노무현 정부 평가를 중시하는 유권자와 인식과 행태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즉, 두 가지 변수에 중점을 두고 비교 분석한다. 셋째, 이 글의 주된 관심의 대상인 후보자 요인 중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특성을 분석한다. 넷째, 이 글은 후보자 요인 중시자와 투표지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후보자 요인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들의 잠재적 영향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BBK사건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II. 후보자 요인 관련 기존 연구

유권자 투표행태 이론은 흔히 정책, 정당, 후보자 등 3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우선 정책 요인에 의한 접근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는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선거이론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대표되며(Downs 1957; Riker and Ordeshook 1973) 유권자는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에 대해 충분히 평가할 만큼 세련되었다는(sophisticated) 주장이다. 이때 이념이 정책 평가의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유권자와 후보자의 이념적

거리의 근접성(ideological proximity), 강도(magnitude) 혹은 방향성(direction)이 투표의 준거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당 요인에 의한 접근은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을 준거로 투표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시간 모델로 대표되며(Campbell 1960) 유권자가 그다지 합리적이거나 세련되지 않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유권자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정당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고 이를 투표 준거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유권자 투표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최근에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왔다.

세 번째 요인인 후보자 요인은 앞선 두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고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 이는 후보자 요인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검증에 대한 측정과 조작화가 쉽지 않았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그나마 현직 의원에 대한 투표지지와 관련한 몇몇 연구가 있을 뿐이다(윤중빈 2006). 한편 미국에서는 후보자 요인에 대한 개념이 리차드 페노(Fenno)의 *Home Style* (1978) 이라는 저서 이후 현직자 효과와 관련해 연구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도 주로 현직의원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고 정치신인의 경우 후보자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된 것이 사실이다.

현직의원과 관련된 후보자 요인은 케인, 페레존, 피오리나가 출판한 저작이 가장 체계적인 결과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들은 ‘개인지지투표(personal vote)’라는 개념으로 현직자에 의한 후보자 요인을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개인지지투표는 “The personal vote refers to that of a candidate’s electoral support which originates in his or her personal qualities, qualifications, activities and record. The part of vote that is not personal includes support for the candidate based on his or her partisan affiliation, fixed voter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tate of the economy, and performance evaluations centered on the head of the governing party” (Cain et al. 1987, 9)로 정의된다.

즉, 정당 요인, 정책 요인,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경제상황 요인, 여당 지도자 인기와 관련이 없는 후보자 개인의 자질, 장점, 업적 및 활동에 대한 평가로부터 발생하는 득표 지지이다. 우리나라 17대 대선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 요인,

경제 살리기 요인, 노무현 정부 평가 요인 등과 관계없는 지지표라고 적용할 수 있다. 만일 18대 총선에 적용한다면 이명박 (정부) 대통령의 인기에 의해 발생하는 ‘후광효과(coattail effect)’는 후보자 요인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케인과 동료들의 연구도 정치신인까지도 포함한 출마한 모든 후보의 득표 지지를 설명하는 변수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17대 대선에 이러한 후보자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선에서 투표결정요인으로 설명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는 후보자 요인이고, 이는 ‘후보자 능력 혹은 자질’로 설명되기도 하고 때로는 도덕성이 포함되기도 한다. 후보자 요인 개념은 인물 요인과 동일시되기도 하고 설문조사의 문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선이 끝난 후 실시된 한국선거학회 설문조사에서도 17대 대선은 ‘후보능력’, ‘도덕성’을 다른 항목으로 질문했고, 16대 대선에서는 ‘인물/능력’ 항목에 ‘도덕성/자질 등’이란 표현을 괄호 안에 포함해 묶어서 질문했다. 15대 대선에서는 ‘인물/국정수행능력’ 항목이 대신했다. 이 밖에 15대는 ‘정치능력’, 16대는 ‘정치경력’, 17대는 ‘이념’을 추가적인 항목으로 질문했다.

한국에서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은 전통문화의 연고주의가 강하게 작동한 1960~70년대 선거에서 강조되었다(길승흠 1993; 길승흠 외 1987). 즉, 정당 본위의 투표와 인물 본위의 투표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분석되었는데 우리 선거에서는 정당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유권자 대다수가 면접조사에서 인물을 보고 찍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과 정당과의 일체감이 없거나 약하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설명이다(조기숙 1996, 119-120).

민주화 이후 기존 정당 간의 노선 차별성이 약화되었고 정당의 이합집산과 유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실제로 후보자 요인의 속성을 갖는 4개의 변수를 검증한 한 연구는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다(이갑윤·이현우 2002). 그러나 동 연구는 후보자 요인으로 현직효과, 당적변경, 세대교체, 낙선운동의 네 가지를 검증했는데 저자들도 밝힌 바와 같이 “여기서 검증된 후보자요인의 구체적인 형태는 후보자요인의 대표적인 형태라기보다는 현실적 관심과 검증

가능성이 복합된 결과물이라는 사실”(2002, 257)로 변수 선정에 있어서 데이터 접근성의 한계가 있었다.

2007년 대선은 과거 선거와 달리 지역과 이념의 영향력이 약화된 선거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노무현 정부 평가 변수와 경제 살리기 변수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다. 둘째,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명박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줄곧 지역과 이념을 초월해 고른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셋째, 정당 간의 정책 대결이 미약한 상황에서 후보자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즉, 본선은 물론 경선에서도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 공방이 치열했기에 후보자 능력과 도덕적 자질이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연구도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한 검증가능성 문제로 후보자 요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후보자 요인의 개념 정의는 최소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후보자 소속정당 및 정책 요인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둘째, 후보자의 자질 혹은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도덕성 또한 후보자 요인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7대 대선에서는 대세를 주도하던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 공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였기에 17대 대선 투표영향 요인 분석에서 후보자 능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도덕성 또한 후보자 요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대선 설문조사에 포함된 ‘후보자 자질과 지도력’ 항목을 중심으로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수행한 도덕성 요인을 추가하여 17대 대선에서의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을 분석한다.

III. 후보자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1. 투표 결정요인 분석

〈표 1〉은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투표 영향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투표의 가장 중요한 준거였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

〈표 1〉 투표 영향 요인

(단위: %)

| 구분 | 비율 |
|---------------|-------|
|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 19.7 |
|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 | 20.8 |
| 후보자의 소속정당 | 8.7 |
| 후보자들의 자질과 지도력 | 46.0 |
| 기타 | 3.2 |
| 모름/무응답 | 1.6 |
| 계 | 100.0 |

출처: YTN · 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조사(8차)

〈표 2〉 후보 선택 기준

(단위: %)

| 구분 | 4월 | 8월 | 10월 | 11월 | 12월 |
|-------|------|------|------|------|------------------------|
| 능력/경력 | 57.3 | 57.2 | 53.0 | 53.8 | 51.5 (이명박지지자: 68.5) |
| 도덕성 | 17.2 | 19.6 | 12.6 | 18.6 | 18.6 (이명박지지자: 1.5) |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 “2007 대선 패널조사 5차 조사, 12월 11-12” (홈페이지: eai.or.kr)

과는 달리 후보자의 자질과 지도력이 오히려 2배 이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물론 경제변수가 노무현 정부 평가에도, 후보자 자질에도 중첩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후보자 요인이 17대 대선에서 중요하게 작동했다는 주장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지도력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속정당은 실제로는 그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는 항상 낮은 비율로 선택되는 일반적인 패턴이 다시금 나타났다.

〈표 2〉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수행한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한 유권자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2개의 변수 중의 하나인 후보자 개인의 능력/경력 변수는, 4월 이후 다섯 차례 패널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50% 이상의 유권자가 중시한다고 응답하였고 도덕성 변수는 20%에 조금 못 미치게 나타났다.^{1) 8}

1) 설문에는 이 두 가지 외에 소속정당, 이념 및 공약, 당선가능성, 출신지역 등의 항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표 3〉 역대 대선의 투표결정 요인

(단위: %)

| 15대 | | 16대 | | 17대 | |
|---------------|-------|---------------------|-------|--------|-------|
| 정책/공약 | 13.7 | 정책/공약 | 23.5 | 정책/공약 | 31.5 |
| 소속정당 | 6.0 | 소속정당 | 8.4 | 소속정당 | 10.8 |
| 인물/국정 수행능력 | 49.1 | 인물/능력 (도덕성/자질 등) | 55.7 | 후보능력 | 32.9 |
| - | | - | | 도덕성 | 13.2 |
| 정치능력 | 23.7 | 정치경력 | 6.5 | 이념 | 4.4 |
| 출신지역 | 2.7 | 개인적 연고 (출신지역 등) | 1.3 | 출신지역 | 1.6 |
| 선거법 준수 | 2.3 | 선거법 준수 | 0.8 | 주변의 평가 | 3.8 |
| 기타 | 2.6 | 기타 | 3.7 | 기타 | 1.7 |
| 무응답 | 0 | 무응답 | 0.2 | 무응답 | 0.1 |
| 계 | 100.0 | 계 | 100.0 | 계 | 100.0 |

출처: 1997년 대선—한국선거연구회 유권자 의식조사; 2002년 대선—한국선거학회 유권자 의식조사; 2007년 대선—한국정치학회·한국선거학회·중앙선관위 공동 유권자 의식조사

월 한나라당의 치열한 경선, 11월의 김경준 씨 귀국, 12월의 검찰수사 발표의 긴장감의 여파가 각각 도덕성 변수의 중요성 비율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2월 조사에서 이명박 지지자의 선택 기준은 일반 유권자 평균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능력/경력은 68.5%, 도덕성은 1.5%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표 1〉의 조사와 달리 응답의 별도 항목으로 두었을 때 후보 선택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보자 요인으로서 후보자 능력과 도덕성 2가지 항목 모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이다.

〈표 3〉은 한국선거학회가 지속적으로 실시한 투표결정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결과는 정책/공약이 투표결정 요인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차 증가했다는 점이다. 15대 13.7%, 16대 23.5%에 비해 17대 대선은 31.5%로 증가하였다. 소속정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두드러진 변화가 없지만 소폭 상승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의 대상인 후보자 요인과 관련해서 각 조사가 약간씩 설문항이 다르지만 그 골격을 이루는 인물/능력 항목에서 15대는 49.1%, 16대는 55.7%, 17대는 46.1%로 나타났다. 모든 설문에서 후보자 요인 관련 설문항 응

〈표 4〉 연령대별 투표 영향 요인

(단위: %)

| 구분 | 노무현 정부 평가 | 후보자 정책 및 공약 | 후보자 소속정당 | 후보자 자질 및 지도력 | 기타 | 모름/무응답 | 계 |
|--------|--------------|----------------|-------------|-----------------|-----|--------|-------|
| 19~29세 | 7.3 | 28.5 | 11.7 | 49.1 | 2.3 | 1.0 | 100.0 |
| 30대 | 15.9 | 20.9 | 6.5 | 49.4 | 5.8 | 1.6 | 100.0 |
| 40대 | 19.7 | 17.7 | 8.3 | 50.5 | 3.1 | 0.7 | 100.0 |
| 50대 | 32.3 | 18.7 | 6.2 | 40.8 | 1.5 | 0.5 | 100.0 |
| 60대 이상 | 25.3 | 18.8 | 11.2 | 37.8 | 2.7 | 4.2 | 100.0 |
| 평균 | 19.7 | 20.8 | 8.7 | 46.0 | 3.2 | 1.6 | 100.0 |

출처: YTN · 한국리서치 공동 정치여론조사(8차)

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대 대선 이후 17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절반의 유권자들이 인물/능력을 후보 지지 결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여론조사에서 소속정당의 영향력은 지극히 낮게 나타나고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유권자가 거짓으로 응답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일관된 패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후보자 요인이 인물 및 능력을 포함하는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포함한다고 볼 때 한국 유권자의 투표 결정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변수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표 4〉는 연령과 투표 영향 요인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자질 및 지도력에서 40대까지는 거의 50%에 가깝게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은 40.8%, 60대 이상은 37.8%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10% 포인트 정도 확연히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노무현 정부 평가는 50대 이상이 더욱 중요한 투표 영향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후보자의 자질에 덜 민감한데, 이는 노년층이 젊은층에 비해 도덕적 결합에 더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후보자 자질 및 지도력은 상호 중첩되는 정도가 낮은, 어느 정도 독립적인 변수들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

한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후보자의 자질 및 지도력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정보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경기 회복을 바라는 유권자

(표 5) 지역별 투표 영향 요인

(단위: %)

| 구분 | 노무현 정부 평가 | 후보자 정책 및 공약 | 후보자 소속정당 | 후보자 자질 및 지도력 | 기타 | 모름/무응답 | 계 |
|--------------|--------------|----------------|-------------|-----------------|-----|--------|-------|
| 서울 | 22.7 | 21.6 | 4.8 | 46.6 | 2.6 | 1.8 | 100.0 |
| 인천/경기 | 20.2 | 16.4 | 6.4 | 52.3 | 3.0 | 1.7 | 100.0 |
| 대전/충청 | 21.9 | 18.5 | 7.9 | 48.2 | 3.6 | 0 | 100.0 |
| 광주/전라 | 8.5 | 24.0 | 17.5 | 41.5 | 5.7 | 2.9 | 100.0 |
| 대구/경북 | 25.8 | 21.8 | 10.3 | 38.3 | 2.7 | 1.1 | 100.0 |
| 부산/울산/ 경남 | 17.7 | 25.1 | 12.0 | 42.4 | 1.7 | 1.2 | 100.0 |
| 강원/제주 | 13.4 | 23.8 | 7.5 | 43.4 | 8.3 | 3.6 | 100.0 |

출처: YTN · 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조사(8차)

의 심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경제변수 의미를 다소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의 자질 및 지도력 변수는 정당 요인, 정책 요인, 정부 평가 요인과는 별개의 보다 개인적인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후보자의 도덕성, 개혁성, 실행력 등이 포함될 것이다.

〈표 5〉는 지역별 투표 영향 요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 평가 변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지역으로 볼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대전/충청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 요인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선거 이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 지역으로 분류되던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광주/전라 지역은 노무현 정부 평가 항목을 가장 낮은 비율로 고려했다. 한편 후보자 자질 및 지도력 항목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38.3%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가장 낮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또한 서울 지역은 평균에 불과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낮게 나타났다.

〈표 6〉에서 학력별 투표 영향 요인을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과 나머지 계층의 차별성이다. 저학력 계층은 노무현 정부 평가 변수를 중요시하는 반면 후보자의 자질 및 지도력은 투표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공약 및 소속 정당 요인은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못한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는 후보자 자질 및 지도력 변수와

〈표 6〉 학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 영향 요인

(단위: %)

| 구분 | 노무현 정부 평가 | 후보자 정책 및 공약 | 후보자 소속 정당 | 후보자 자질 및 지도력 | 기타 | 모름/ 무응답 | 계 | |
|-----------------|-----------------|-------------------|-----------------|--------------------|------|------------|------|-------|
| 학력 | 중졸이하 | 24.3 | 21.5 | 9.8 | 35.4 | 4.0 | 4.9 | 100.0 |
| | 고졸이하 | 20.8 | 18.6 | 8.6 | 48.1 | 3.1 | 0.7 | 100.0 |
| | 전문대재학이상 | 18.0 | 21.6 | 8.5 | 47.7 | 3.1 | 1.1 | 100.0 |
| | 모름/무응답 | 0 | 27.3 | 0 | 72.7 | 0 | 0 | 100.0 |
| 사회 경제적 지위 | 상 | 18.2 | 28.6 | 11.2 | 27.9 | 14.1 | 0 | 100.0 |
| | 중 | 19.9 | 21.3 | 9.4 | 46.1 | 2.1 | 1.2 | 100.0 |
| | 하 | 19.7 | 17.9 | 6.6 | 47.7 | 5.4 | 2.7 | 100.0 |
| | 모름/무응답 | 8.0 | 23.5 | 0 | 57.8 | 0 | 10.7 | 100.0 |

출처: YTN · 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조사(8차)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스스로 높다고 평가하는 ‘상’ 집단은 ‘중’ 및 ‘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보자의 자질 및 지도력에 덜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후보자의 자질 가운데 도덕성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즉, 사회 상층 집단이 기득권 세력으로서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너그럽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앞서 노년층이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해 더 관대할 것이라는 해석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 인 계층은 또한 다른 계층에 비해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명박 후보의 친기업 및 친시장 중심의 성장을 위한 정책 공약이 우리 사회 기득권 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 후보자 평가 및 후보자 투표지지 분석

〈표 7〉은 항목별 후보자 평가의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²⁾ 우선 이명박 후보가 후보자 정책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6.8로 단연 앞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명박 후보는 정책 영역과 개혁성 영역 모두에서 앞섰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후보들이 정책 영역보다 개혁성 영역에

〈표 7〉 후보자 평가 (0~10점)

| 구분 | 정동영 | 이명박 | 이회창 | 문국현 | 권영길 |
|--------------------------|------|------|------|------|-----|
| 정책 (평균) | 4.4 | 6.8 | 4.6 | 4.9 | 3.5 |
| 개혁성 (평균) | 4.6 | 6.8 | 4.7 | 5.1 | 4.1 |
| 후보 호감도 (평균) | 4.1 | 6.2 | 4.5 | 5.1 | 3.6 |
| 초기 지지후보 (%) (지지후보변경자) | 21.0 | 29.3 | 13.6 | 22.9 | 3.6 |

출처: YTN·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조사(8차)

서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은 반면 이명박 후보는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후보 호감도는 대부분의 경우 후보 정책 평가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이명박 후보는 0.6%포인트 차이로 정동영 후보의 0.3%포인트 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격차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를 변경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초기 지지 후보 비율에서 이명박 후보가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국현, 정동영, 이회창, 권영길 후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측대로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과정 자체가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어느 정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거의 1년 동안 5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선거 막판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이회창 후보의 출마 선언의 영향도 있지만,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실망한 일부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8〉은 지지 후보 변경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20.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9.5%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 변경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인 31.0%는 지지했던 후보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다.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이명박 후보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때, 후보에 대한 실망감과 새로 마음에

-
- 2)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후보자 요인의 핵심적인 요소는 도덕성과 자질/능력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엄격한 의미에서 후보자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 요인에 포함되는 요소들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즉, 정책 요소와 개혁성 요소를 대비시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표 8〉 지지 후보 변경 이유

(단위: %)

| 구분 | 지지후보 실망감 | 지지후보 소속정당 실망 | 새로운 지지 후보 나타남 | 지지후보 낮은 당선 가능성 | 모름/무응답 | 계 | |
|----------|-------------|--------------------|------------------|----------------------|--------|-------|-------|
| 전체 평균 | 31.0 | 5.2 | 27.3 | 30.3 | 6.3 | 100.0 | |
| 연령 | 19~29 | 21.4 | 6.0 | 32.5 | 33.6 | 6.5 | 100.0 |
| | 30대 | 36.8 | 3.2 | 26.0 | 29.2 | 4.8 | 100.0 |
| | 40대 | 37.8 | 6.3 | 19.3 | 28.6 | 8.0 | 100.0 |
| | 50대 | 32.9 | 6.0 | 27.4 | 27.6 | 6.2 | 100.0 |
| | 60대 이상 | 17.8 | 4.8 | 39.7 | 33.0 | 4.8 | 100.0 |
| | 지역 | 서울 | 34.1 | 8.9 | 19.6 | 32.2 | 5.3 |
| 인천/경기 | | 42.1 | 0 | 22.6 | 27.3 | 8.0 | 100.0 |
| 대전/충청 | | 20.6 | 6.7 | 48.0 | 17.8 | 6.9 | 100.0 |
| 광주/전라 | | 12.8 | 6.0 | 35.6 | 42.7 | 2.9 | 100.0 |
| 대구/경북 | | 22.0 | 0 | 23.3 | 54.6 | 0 | 100.0 |
| 부산/울산/경남 | | 25.1 | 11.7 | 25.8 | 24.2 | 13.2 | 100.0 |
| 강원/제주 | | 66.7 | 0 | 24.2 | 9.1 | 0 | 100.0 |

출처: YTN · 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조사(8차)

드는 후보가 생겼다는 응답이 이명박 후보로부터의 이탈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된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전자는 도덕성 논쟁으로, 후자는 좀 더 보수적인 이회창 후보의 등장이 핵심을 이룬다고 생각된다.

연령별로는 3~40대, 지역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지지 후보에 대한 실망감으로 변경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회창 후보의 텃밭으로 실제 높은 지지가 나왔던 대전/충청 지역의 경우 실제로 새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생겨서 지지 후보를 변경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9〉는 투표 영향 요인과 후보 지지의 상관관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수가 28개에 불과해 평가가 어려운 권영길 후보 지지를 제외한 4명 모두의 경우 후보자 자질/지도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지를 받았다. 정동영, 이회창, 문국현 지지의 경우 후보자 요인 중시 전체 평균인 46.1%에 비해 다소 높은 48.4%, 68.8%, 53.8%의 유권자가 중시했으나, 이명박 후보 지지의 경우 평균보다 3.7%포인트 낮은 42.4%로 나타났다.

동시에 이명박 후보 지지자의 경우 전체 평균 19.7%에 비해 상대적으로 6.6%포인트 높은 26.3%가 노무현 정부 평가 요인을 중시하는 유권자인 것으로

〈표 9〉 투표 영향 요인과 후보지지

| 구분 | 노무현 정부평가 | 후보자 정책 및 공약 | 후보자 소속정당 | 후보자 자질 및 지도력 | 기타 | 모름/무응답 | 총계 |
|-------------|---------------------------------|-------------------|-------------|--------------------|-------|--------|-------|
| 정동영 | 13 (N) | 34 | 21 | 75 | 12 | 0 | 155 |
| | 8.4 (%) | 21.9 | 13.5 | 48.4 | 7.7 | 0 | 100.0 |
| | 6.1 (%) | 15.0 | 23.3 | 15.1 | 33.3 | 0 | 14.4 |
| | 1.2 (%) | 3.2 | 2.0 | 7.0 | 1.1 | 0 | 14.4 |
| 이명박 | 166 | 126 | 49 | 268 | 15 | 8 | 632 |
| | 26.3 | 19.9 | 7.8 | 42.4 | 2.4 | 1.3 | 100.0 |
| | 78.3 | 55.8 | 54.4 | 54.0 | 41.7 | 50.0 | 58.7 |
| | 15.4 | 11.7 | 4.6 | 24.9 | 1.4 | 0.7 | 58.7 |
| 이회창 | 12 | 15 | 4 | 77 | 2 | 2 | 112 |
| | 10.7 | 13.4 | 3.6 | 68.8 | 1.8 | 1.8 | 100.0 |
| | 5.7 | 6.6 | 4.4 | 15.5 | 5.6 | 12.5 | 10.4 |
| | 1.1 | 1.4 | 0.4 | 7.2 | 0.2 | 0.2 | 10.4 |
| 문국현 | 6 | 23 | 3 | 42 | 2 | 2 | 78 |
| | 7.7 | 29.5 | 3.8 | 53.8 | 2.6 | 2.6 | 100.0 |
| | 2.8 | 10.2 | 3.3 | 8.5 | 5.6 | 12.5 | 7.2 |
| | 0.6 | 2.1 | 0.3 | 3.9 | 0.2 | 0.2 | 7.2 |
| 권영길 | 2 | 14 | 4 | 7 | 1 | 0 | 28 |
| | 7.1 | 50.0 | 14.3 | 25.0 | 3.6 | 0 | 100.0 |
| | 0.9 | 6.2 | 4.4 | 1.4 | 2.8 | 0 | 2.6 |
| | 0.2 | 1.3 | 0.4 | 0.7 | 0.1 | 0 | 2.6 |
| 기타 | 4 | 6 | 3 | 5 | 2 | 1 | 21 |
| | 19.0 | 28.6 | 14.3 | 23.8 | 9.5 | 4.8 | 100.0 |
| | 1.9 | 2.7 | 3.3 | 1.0 | 5.6 | 6.3 | 2.0 |
| | 0.4 | 0.6 | 0.3 | 0.5 | 0.2 | 0.1 | 2.0 |
| 모름/ 무응답 | 9 | 8 | 6 | 22 | 2 | 3 | 50 |
| | 18.0 | 16.0 | 12.0 | 44.0 | 4.0 | 6.0 | 100.0 |
| | 4.2 | 3.5 | 6.7 | 4.4 | 5.6 | 18.8 | 4.6 |
| | 0.8 | 0.8 | 0.6 | 2.0 | 0.2 | 0.3 | 4.6 |
| 총계 | 212 | 226 | 90 | 496 | 36 | 16 | 1076 |
| | 19.7 | 21.0 | 8.4 | 46.1 | 3.3 | 1.5 | 100.0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19.7 | 21.0 | 8.4 | 46.1 | 3.3 | 1.5 | 100.0 |
| 카이스퀘어 검증 | Chi-square value=114.8, p=0.000 | | | | | | |

출처: YTN · 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조사(8차)

나타났다. 이 요인의 경우 이회창 후보 지지자의 10.7%, 정동영 후보 지지자의 8.4%, 문국현 후보 지지자의 7.7% 순으로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투표 요인으로 중시한 응답자 가운데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경우는 무려 78.3%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후보는 정동영 후보 지지 6.1%, 이회창 후보 지지 5.7%, 문국현 후보 지지 2.8%, 권영길 후보 지지 0.9%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2가지 방향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명박 후보에 대한 투표 지지는 후보자 자질/지도력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평균보다 낮게 지지했고, 노무현 정부 평가를 중시하는 유권자는 평균보다 높게 지지했다는 점이다. 즉, 전체 응답자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이명박 후보 지지자는 후보자의 자질/지도력 요인보다 노무현 정부 평가 요인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 평가 항목만을 따로 볼 때, 이를 투표 영향 요인으로 고려한 응답자의 대다수인 78.3%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은 이명박 후보 지지의 상당 부분이 노무현 정부 비판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상대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는 자질/지도력보다는 노무현 정부 평가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작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후보자 자질/지도력 요인이 전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이명박 후보 지지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심판론이 동시에 중요하게 작동했고, 이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실행능력이 인정 받은 동시에 한편으로는 도덕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표출되어 이명박 후보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철회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은 투표지지 후보자 그룹별로 후보자 정책 평가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몇 가지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동영 후보 투표지지자들은 후보자 가운데 정동영 후보의 정책을 평균 6.4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권영길, 이회창 후보를 각각 3.8점과 3.9점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명박, 문국현 후보를 각각 5.1점, 4.9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 영역 점수가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은 흥미롭다. 둘째, 이명박 후보 투표지지자들은 이명박 후보 7.8점으로 가장 높게 정동영 후보 3.7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셋째, 이회창 후보 투표지지자들은 이회창 후보 다음으로 이명박 후보의 정책

〈표 10〉 후보자 정책 평가와 투표지지 후보

| | | 후보자 정책 평가 | | | | |
|----------------------------|-----|------------------------------|------------------------------|------------------------------|------------------------------|------------------------------|
| | | 정동영 | 이명박 | 이회창 | 문국현 | 권영길 |
| 투 표 지 지 후 보 | 정동영 | 6.4 (154) | 5.1 (153) | 3.9 (153) | 4.9 (152) | 3.8 (150) |
| | 이명박 | 3.7 (622) | 7.8 (630) | 4.4 (619) | 4.6 (609) | 3.0 (607) |
| | 이회창 | 4.3 (112) | 6.0 (112) | 6.9 (112) | 5.1 (108) | 3.6 (109) |
| | 문국현 | 5.3 (78) | 5.5 (78) | 4.5 (77) | 7.0 (78) | 4.7 (77) |
| | 권영길 | 5.1 (26) | 5.6 (27) | 4.6 (26) | 5.5 (25) | 6.4 (28) |
| | 총계 | 4.3 (992) | 7.0 (1000) | 4.6 (987) | 4.9 (972) | 3.4 (971) |
| anova | | F=50.8 df=4 sig.=0.000 | F=82.4 df=4 sig.=0.000 | F=34.1 df=4 sig.=0.000 | F=20.6 df=4 sig.=0.000 | F=27.0 df=4 sig.=0.000 |

출처: YTN · 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조사(8차)

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상대적으로 정동영 후보(4.3)보다 문국현 후보(5.1)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넷째, 나머지 두 후보, 문국현, 권영길 후보 투표지지자들도 두 번째로 높은 점수는 이명박 후보에게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비추어볼 때, 이명박 후보가 정책 영역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 투표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후보 투표지지자들도 정책 영역 제2선호는 대부분 이명박 후보로 나타났다.

〈표 11〉의 후보자 투표지지와 개혁성 평가의 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동영 후보 투표자들은 정동영 후보를 가장 높게 이명박 후보를 가장 낮게 평가했고 이명박 후보 투표자들은 정동영 후보를 가장 낮게 평가했다. 둘째, 흥미로운 사실은 이명박 후보 투표자들은 정책 평가에 비해 개혁성 평가에서 나머지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높게 평가했으나 정작 이명박 후보에게는 0.3%포인트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다. 셋째, 이회창 후보 투표지지자들은

〈표 11〉 후보자 개혁성 평가와 투표지지 후보

| | | 후보자 개혁성 평가 | | | | |
|----------------------------|------------------------------|------------------------------|-----------------------------|------------------------------|------------------------------|--------------|
| | | 정동영 | 이명박 | 이회창 | 문국현 | 권영길 |
| 투 표 지 지 후 보 | 정동영 | 6.4 (153) | 5.6 (153) | 4.0 (153) | 5.1 (152) | 4.7 (150) |
| | 이명박 | 3.9 (620) | 7.5 (629) | 5.4 (619) | 4.8 (613) | 3.5 (607) |
| | 이회창 | 4.5 (112) | 6.3 (112) | 6.5 (112) | 5.4 (109) | 3.9 (110) |
| | 문국현 | 4.9 (77) | 5.7 (77) | 6.6 (77) | 6.7 (77) | 5.1 (77) |
| | 권영길 | 5.4 (27) | 5.6 (27) | 4.5 (26) | 5.9 (25) | 6.6 (27) |
| | 총계 | 4.5 (989) | 6.9 (998) | 5.4 (987) | 5.1 (976) | 4.0 (971) |
| anova | F=39.0 df=4 sig.=0.000 | F=42.1 df=4 sig.=0.000 | F=2.1 df=4 sig.=0.074 | F=12.3 df=4 sig.=0.000 | F=21.0 df=4 sig.=0.000 | |

출처: YTN · 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조사(8차)

정책 영역에서는 이회창, 이명박, 문국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고 개혁성에서도 동일한 순위이지만 격차가 0.9%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넷째, 권영길 후보 투표지지자들은 이회창 후보의 개혁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요약컨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지만 상대적으로 개혁성 영역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덕적 취약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는 후보 호감도와 정당 호감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³⁾ 정동영 후보의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4.1점인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호감도는 3.5점으로 약 0.6점의 차이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에 비해 평균 0.5점 호감도가 높았으며 문국현 후보는 1.0점, 권영길 후보는 오히려 0.1점 감소했다. 주

3) 후보 호감도 및 정당 호감도는 매우 싫어하면 0점, 매우 좋아하면 10점, 중간에 가까울 때는 5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표 12〉 후보 호감도와 정당 호감도

| | | | | | |
|--------------|---------|------|-------|-------|-------|
| | 정동영 | 이명박 | 이회창 | 문국현 | 권영길 |
| 후보 호감도 평균(A) | 4.1 | 6.2 | 4.5 | 5.1 | 3.6 |
| | 대통합민주신당 | 한나라당 | 국민중심당 | 창조한국당 | 민주노동당 |
| 정당 호감도 평균(B) | 3.5 | 5.7 | 3.4 | 4.1 | 3.7 |
| 편차(A-B) | 0.6 | 0.5 | 1.1 | 1.0 | -0.1 |

출처: YTN · 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조사(8차)

〈표 13〉 후보 호감도, 정당 호감도, 투표지지

| | | | | |
|--------|--------|------|---------|------|
| | 후보 호감도 | | 정당 호감도 | |
| 투표지지후보 | 정동영 | 이명박 | 대통합민주신당 | 한나라당 |
| 정동영 | 6.87 | 3.35 | 6.33 | 2.81 |
| 이명박 | 3.19 | 7.72 | 2.79 | 7.06 |

출처: YTN · 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조사(8차)

요 후보 3명의 후보 호감도가 정당 호감도에 비해 높은 것은 후보자 요인이 정당 요인보다 더 비중 있게 작동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표 13〉은 투표지지 후보에 따른 후보 호감도와 정당 호감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경우 이명박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평균 7.72점으로 한나라당 호감도 7.06점에 비해 0.66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후보 투표지지자들은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호감도 또한 정동영 후보 호감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정동영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에게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정동영 후보 호감도는 6.87점이었으나 민주신당 호감도는 6.33점으로 0.54점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투표 지지 후보별로 유권자를 분류해도 후보자 호감도가 정당 호감도에 비해 높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후보자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3. BBK사건의 영향력 분석

BBK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복잡하여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 또한 BBK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BBK사건이 선거과정과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기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은 이명박 후보가 불법적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주가조작의 주범인 김정준 씨와의 관계, 주가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이득의 수혜 여부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동 사건이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고 선거 막판까지 주요 변수로 간주되어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표 14〉는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건에 대한 유권자의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가장 비율이 높은 사건은 BBK 의혹 사건으로 10명 중 4명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참여정부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론이 23.9%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로는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이 9.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패 보수 세력 집권 지지 사안으로 8.2%, 이회창 후보 출마선언이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예측한 대로 이명박 후보의 도덕적 자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 14〉 지지후보 결정 영향 사건

| 사건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BBK 의혹 사건 | 478 | 39.8 |
| 제2차 남북정상회담 | 27 | 2.3 |
|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 108 | 9.0 |
| 이회창 후보의 한나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 | 83 | 6.9 |
| 참여 정부 국정 실패 심판 | 287 | 23.9 |
| 부패 보수 세력 집권 지지 | 98 | 8.2 |
| 범여권의 후보단일화 실패 | 42 | 3.5 |
| 기타/무응답 | 119 | 6.5 |
| 총계 | 1200 | 100.0 |

출처: 한국정치학회 · 한국선거학회 · 중앙선관위 공동 2007 대선 유권자 의식조사

〈표 15〉 BBK 검찰발표 이후 여론변화

| 구분 | 설문 내용 | 항목 | 비율 |
|-----------------------|----------------------------|----------|------|
| 5차 조사 (12월 11~12일) | 검찰 BBK사건 수사결과 | 신뢰함 | 34.1 |
| | | 신뢰안함 | 62.3 |
| | | 모름 | 3.7 |
| | 통합신당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 공감함 | 44.1 |
| | | 공감안함 | 50.1 |
| | | 잘 모름 | 5.8 |
| 6차 조사 (12월 20~21일) | BBK 동영상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영향력 | 더 좋아짐 | 4.0 |
| | | 영향 없음 | 57.9 |
| | | 더 싫어짐 | 36.5 |
| | | 듣지 못함/모름 | 1.6 |
| | BBK 특별검사제 도입 | 동의함 | 52.4 |
| | | 동의하지않음 | 47.0 |
| | | 모름 | 0.6 |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 “2007 대선 패널조사 6차 조사” (홈페이지: eai.or.kr)

BBK사건이 압도적인 비율로 지지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로 평가되는 참여정부 심판론은 2위에 머물렀다. 이회창 후보 출마 또한 상당히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로 12월 5일 BBK사건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여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수사 발표 약 1주일 뒤에 실시된 제5차 조사에서는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3%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두 배 가까운 비율로 높았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무혐의 결과가 심정적으로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통합신당에 의한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발의는 공감 안 한다는 의견이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다소 높았다. 이명박 대세론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꺼려하는 유권자의 심리가 반영되었다.

한편 투표일 직후인 12월 20-21일에 실시한 6차 패널조사에서는, 선거 막판에 터진 BBK사건 관련 동영상으로 인해 이명박 후보가 더 싫어졌다는 응답이 36.5%,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57.9%로 나타났다. BBK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2.4%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47.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6〉 이명박 후보 지지자 유입 및 이탈 조사

| 구분 | 지지 후보명 | 사례수 | | 비율 (%) |
|----|--------|-----|-----|--------|
| 유지 | 이명박 | 910 | 993 | 69.9 |
| 유입 | 이명박 | 83 | | |
| | 총 이탈자 | 392 | | 30.1 |
| 이탈 | 이회창 | 181 | | 13.9 |
| | 정동영 | 42 | | 3.2 |
| | 기타 후보 | 49 | | 3.8 |
| | 부동층 등 | 120 | | 9.2 |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 “2007 대선 패널조사 4차 조사” (홈페이지: eai.or.kr)

이상의 결과는 투표 지지와는 관계없이 이명박 후보 호감도에 있어서 BBK사건은 영향을 미쳤고 적어도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은 검찰 수사 결과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기 힘들다는 경험적 증거가 된다.

〈표 16〉의 내용 또한 동일한 응답자에게 다른 시기에 조사하여 유권자 의식 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는 동아시아연구원의 패널조사의 결과이다. 3차 조사(10월 17~20일)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1,302명의 응답자 가운데 약 70%인 910명은 4차 조사(11월 25~27일)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나머지 30.1%인 392명은 지지를 철회하여 이탈하였다. 한편 83명은 새로운 지지자로 유입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총 이탈자 392명의 행방인데 181명은 이회창 후보에게, 42명은 정동영 후보, 49명은 기타 후보, 20명은 부동층 등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내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후보 등록일을 포함한 4차 조사 11월 25~27일 기간은 BBK 핵심 인물인 김정준 씨가 소환되어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간으로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의 평균 지지율도 3차 조사 때의 54.2%에서 4차 조사에서는 41.7%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를 철회한 이유로는 “도덕성에 실망해서”가 69.5%, “더 나은 후보가 생겨서” 16.6%, “지지 후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약컨대, 10월

중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가운데 상당한 숫자인 10명 중 3명은 지지를 철회했고, 그 이유는 대부분 도덕적 결함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이 연구는 지금까지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을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후보자 요인으로 후보자의 자질 및 지도력, 좀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도덕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앞선 분석의 결과는 크게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후보자의 자질 및 지도력’ 항목에는 도덕성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예상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설문조사 결과처럼 ‘노무현 정부 평가’ 항목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역대 대선에서 후보자 요인 항목은 지속적으로 투표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노년층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일수록 후보자 요인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기 지지에서 이탈한 비율이 이명박 후보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지지 후보에 대한 실망감과 새로운 후보에 대한 지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BBK사건과 이회창 후보 출마선언과 관련된다. 다섯째, 이명박 후보에 대한 투표지지는 정책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개혁성 영역에서 주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BBK사건은 지지후보 결정 사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패널조사에서도 그 영향력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철회에서 알 수 있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출범 초기 지지도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부분적으로는 인수위의 과욕에 대한 비판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협상력 부재와 국무위원 인사시스템의 한계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인 효율성과 업무 능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장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기대수준을 간과하는 우

를 범하게 된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국무위원에 대한 도덕성까지도 양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욕구는 사회지도층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17대 대선과정에서도 폭발적인 변수로 잠재되어 있었지만 검찰이 이명박 후보 무혐의라는 수사결과를 투표일 약 보름 전에 발표함에 따라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게 된다.

[참고문헌]

- 길승흠 1993. “한국인의 정치의식 구조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26집 3호.
- 길승흠·김광웅·안병만. 1987. 『한국선거론』. 다산출판사.
- 윤종빈. 2006.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집 3호.
- 이갑윤·이현우. 2002. “후보자 요인이 득표에 미치는 영향.”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서울: 한울.
- Cain, Bruce, John Ferejohn, and Morris Fiorina. 1987. *The Personal Vote: Constituency Service and Electoral Independence*. Cambridge, Mas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P. E. Converse, W. E. Miller, and 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 Riker, William, and Peter C. Ordeshook. 1973.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olitical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ABSTRACT]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and Candidate-Oriented Factors

Yoon, Jong-Bin |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tests the significance of candidate-oriented factor, such as qualification, leadership and morality, by analyzing survey result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into five. First, the concept of qualification and leadership contains the meaning of morality. Second, a candidate-related factor has been influential to voting choice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Third, age, education level, social status variables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sensitivity of morality. Fourth, the candidate Lee Myung-Bak has the highest defection ratio due to both disappointment of Lee and a new candidate. Fifth, it is found that the BBK scandal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determines voting choice. In short, it can be argued that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proposes the significance of morality as one of presidential qualifications.

Key Words | candidate-related factor, qualification, leadership, morality, BBK scandal